KEB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0. 17

서 정훈 연구위원
seojh@hanafn.com
02.729.0195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KEB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0/11-10/14)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미 고용지표 호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에 상승. 9월 미 비농업 고용이 증가폭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견조한 수준 유지해 연준 고강도 긴축 뒷받침하며 달러는 강세 나타냄.
- 주 중반, 달러-원은 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과 한은 총재의 환율 급등 경계 발언에 하락.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장비 수입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증시가 상승 전환하고,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한은 총재 고환율 경계 발언 이어지자 환율은 주초 상승폭을 일부 되돌림.
- 주 후반, 달러-원은 9월 CPI 발표 앞두고 결제 우위에 상승했다가, 핵심 CPI 상승세 확인에도 불구 증시 반등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8.00	1,438.10	1,422.10	1,428.50	+16.10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물가불안에 따른 강달러와 중국 정치 이벤트 앞둔 불확실성 속 지지력 유지하며 연고점 테스트 예상됨. 지난주 CPI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지표를 통해 확인한 여전한 물가 상방 압력은 연준 최종 금리 전망을 높이며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할 듯. 16일 개막한 금주 중국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하며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압력 커질 것으로 판단.
- 다만 당국 수급 개선책 본격화에 따라 금주 환율 상승속도는 조절될 것으로 전망. 수출입은행을 중심해 조선업체 선물환 거래를 본격화하고 금주 국민연금-한은 통화 스왑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달러에도 불구 매수 쏠림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예상거래범위
1,430원 ~ 1,450원

엔•유로화 동향 (10/3~10/7)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강화 전망 속에 동유럽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함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상승 전환 흐름을 보이던 유로화는 재차 하락하는 모습
- 중반 들어, 미국의 CPI외에 PPI도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이날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도 향후 강한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영향에 유로 약세 지속된 양상
- 후반 들어, 영국 정부의 감세안 전면 철회 소식이 위험자산의 강세를 이끎에 따라 달러 약세 전환 반영 속 유로화도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세, BOE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 등에 따른 불안감이 달러 강세 견인하면서 유로화는 약세 흐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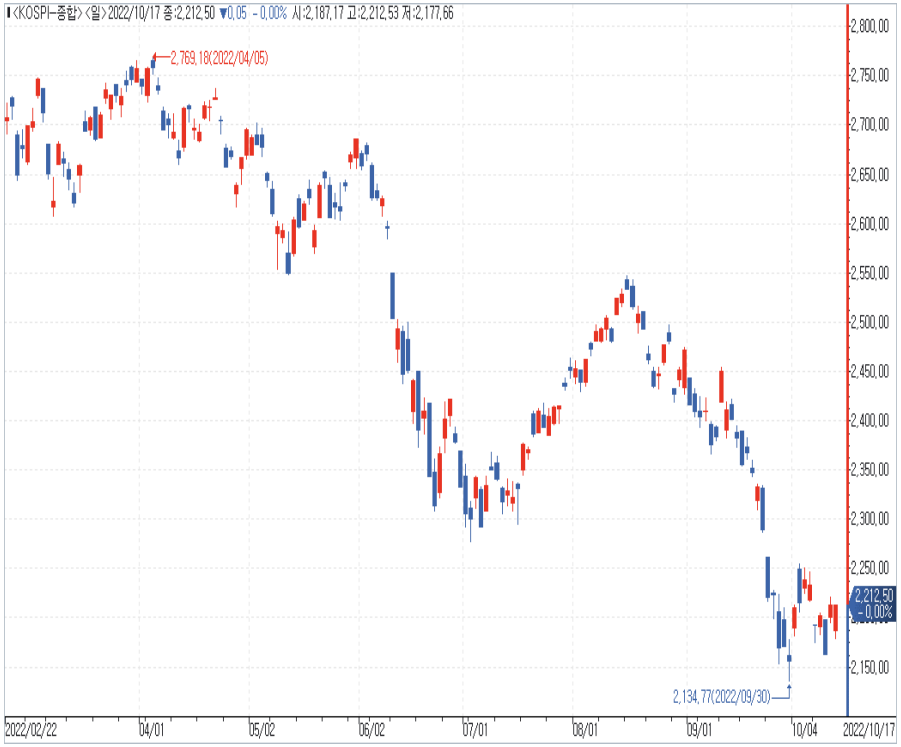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0.9741	0.9809	0.9633	0.9721	-0.0020

엔화 동향

- 주초,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강화 전망과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에도 미-일 국채 스프레드 확대 , BOJ의 완화정책 고수 의지 등으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연준 매파 지속에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 등의 반영이 이어지며 145엔대를 뛰어넘는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미국의 강한 물가 상승세 속 긴축 강화 영향에도 BOJ는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구로다 총재의 언급 등으로 146엔대를 상회
- 후반 들어서도 연준의 매파 성향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엔화는 전일에 이어 147엔대로 상승 후 주 후반, BOJ 구로다 총재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함을 시사함에 따른 영향이 엔화 약세를 지속하게 하면서 149엔대에 근접하는 모습 속에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5.2	148.9	145.2	148.8	+3.51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4~10/7)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연휴간 상승한 미국, 영국 등 해외 금리 방향성을 반영한 가운데 주중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 속에 상승 출발. 이어 한은 금통위에서 빅스텝 금리인상을 결정했으나, 25bp 소수 의견 2인과 최종 금리 수준 전망이 3.5%로 제시된 점 등이 반영되면서 급락세로 전환
- 후반 들어, 미 9월 CPI에 대한 경계감 속에 ABCP 부실화 우려 등 크레딧 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재차 급등세 보인 후, 주 후반, 미국 9월 CPI의 시장 예상을 벗어난 상승세에도 영국의 감세안 철회 기대감에 영국, 독일 등에서의 금리 급락세 반영이 상충하며 보합권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연준의 긴축 우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등이 맞물리며 2,200선 하회 속에 출발. 이어, 연준의 매파 기조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불확실성 증대, 한은 금통위의 빅스텝 금리 결정에도 외국인 수급 유입에 따라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미국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예상을 벗어날 우려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2,170선까지 하락세를 보인 이후, 주 후반, 미 9월CPI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시장 예상보다 높은 8.2%를 기록한 가운데, 근원 CPI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음에도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위기에 뉴욕증시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